

어린이 잡지 『아이생활』의 창간 주도 세력 연구

— 『아이생활』 발간에 참여한 미국 기독교 선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

박영지*

국문초록

『아이생활』은 1926년 3월에 창간되어 1944년 1월까지 18년간 지속적으로 발행된 기독교계열의 아동잡지이며 한국아동문학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발행된 잡지이다. 잡지의 발간 배경에는 조선의 기독교 문서사업 단체였던 조선야소교서회(耶蘇敎書會)‘, 그리고 기독교 교육 사업 단체였던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의 연합이 있었다. 기독교 사업 단체였던 두 단체를 배경으로 다수의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발간과 재정 면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생활』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육지 및 선교지를 지향하였다.

『아이생활』은 기독교 단체 및 관련 인사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간된 잡지였기에 기독교가 아동문학과 문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이고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동문학과 기독교의 연관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사회사적 맥락과 역사적 정황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 선교사, 문서 선교 및 잡지 발간의 주축이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단을 비롯하여 서구권 선교사에 대한 연구 및 잡지의 보급 통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주일학교와 기독교 교육 사업에 관한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생활』에 게재된 문학 작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섬세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다시 순환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아이생활, 기독교, 선교사, 주일학교, 기독교 잡지, 조선주일학교연합회

* 인하대학교, mushroom211@naver.com

목차

- | | |
|----------------------------|--------------------------------|
| 1. 서론 | 4. 『아이생활』과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문명관 |
| 2. 개항기 조선과 미국 기독교 선교사 | 5. 결론 |
| 3. 『아이생활』의 창간 주도 세력 | |
| (1) 학생자원운동(SVM)과 내한 선교사 | |
| (2) '조선예수교서회'와 '조선주일학교연합회' | |

1. 서론

『아이생활』은 1926년 3월에 창간되어 1944년 1월까지 18년간 지속적으로 발행된 기독교계열의 아동잡지이며 한국아동문학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발행된 잡지이다. 1926년 3월 10일 창간호가 발행되었으며 창간호의 판권지를 보면 편집인은 한석원(韓錫源), 발행인은 미국 선교사 라의수(羅宜壽), 인쇄인 김상원(金相源), 인쇄소 상광(相光)인쇄소, 발행소 아희생활사(서울·서대문동 2가 27)로 되어있다. 1930년 11월호부터 제호는 『아이생활』로 변경되었다.

『아이생활』의 발간 배경에는 조선의 기독교 문서사업 단체였던 조선야소교서회(耶蘇敎書會), 그리고 기독교 교육 사업 단체였던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의 연합이 있었다. 1889년 미국인 선교사 존 헤론(J. W. Heron)의 제안으로 조직된 '조선성교서회(朝鮮聖敎書會)'를 전신으로 두는 '조선예수교서회'는 기독교 문서 선교 단체였으며 현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이다.¹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역시 한국 주재 외국인 선교사들이 기독교 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해 1905년에 설치한 '주일학교위원회'를 전신으로 둔다. 기

1 헤리 로즈 저, 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400면.

독교 사업 단체였던 두 단체를 배경으로 다수의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발간과 재정 면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생활』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육지 및 선교지를 지향하였다.

1926년도 창간호의 발행인 미국인 선교사 내쉬(Nash William L. 羅宜壽)는 1921년 YMCA 간사로 내한하여 청소년과 학생 사업을 담당했다. 경성중앙기독교청년회 간사로 소년부, 학생부, 농촌부를 맡았으며 1925년에서 30년까지는 평양기독교청년회 간사로 파견되어 농촌운동을 추진했다.² 그의 활동 내역은 여러 신문이나 잡지, 일기에서 확인된다. 1922년에 개최된 만국 기독교 청년회 출석자 명단에 ‘경성 선교사 미국인 라의수(羅宜壽)’라는 이름이 보인다.³ 또한 YMCA 운동가이자 기독교 교육자였던 김창제(金昶濟)의 1926년도 일기에 라의수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기독교청년회 간사로서 자주 등장하며 김창제와 두터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성경학교교사참고서』라는 책을 번역 한 것으로 보아 한국어에도 상당히 능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⁵

창간호의 편집인 한석원(韓錫源)은 1894년 2월 1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했다. 이후 평남 진남포로 이주하여 1909년 6월까지 진남포 삼송학교에서 초등교육을, 그리고 1912년 3월까지 서울 성동교회 청년학원에서 중등 교육을 받은 후 일본으로 건너가 신호관서학원 신학부에서 종교교육을 전공하고 1917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서울 중앙 YMCA 소년부 간사로 취임하였다.⁶ 이후 1918년부터 1927년까지는 서울에서 『아희생활』

2 김승태, 『내한 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397면.

3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8 종교운동편』, 2002.
「萬國基督教青年會出席者ノ言動ノ件(1922)」, “京城宣教師米國人 ラキス (羅宜壽)”

4 안동교회 역사보존위원회, 『김창제 일지 1926』, 안동교회역사보존위원회, 2010, 28면.
“青年 聯合會 幹事 羅宜壽(라의수) 씨의 書를 讀하고 卽答하다”

5 『동아일보』, 「羅宜壽(譯述, 米國人)聖經學校教師參考書」, 1924년 08월 10일.

을 비롯하여 『주일학교연구』, 『새동무』 등의 발행 및 편집에 관여하였으며, 미국 감리교회 주일학교 순회교사, 피어선기념성경학원 원감,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총무, 조선하기아동성경학교 총무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한석원은 1927년 말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후 캘리포니아주 리들리에 있는 남감리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1929년 아동가극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⁷

1927년 9월호의 판권지를 보면 발행인은 미국인 선교사인 홀드크로프트(James G. Holdcroft, 한국명 허대전(許大殿)), 편집인은 홀드크로프트에게서 신앙 훈련을 받은 목사였던 정인과(鄭仁果)이다.⁸ 정인과는 정인과는 1888년 평남 순천군 은산면에서 출생하여 숭실 중학과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안창호 선생을 뒤따라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 33번째 단우(團友)로 흥사단에 가입하였고, 역시 안창호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인국민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흥사단과 동우회, 그리고 장로교회를 기반으로 1937년 이전까지 기독교를 중심으로 문화적, 종교적 민족주의 운동

6 윤춘명, 「삶과 교육 -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개척자 한석원 목사」, 『교육교회』 No.151, 1988.

7 박영정, 「1920년대 초 주일학교 공연 레퍼토리 분석」, 『한국문학과 예술』 5, 2010.

8 조선예수교장로회 2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된 정인과 목사를 미국 북장로교 소속 홀드크로프트(Rev. J. Godden, Holdcroft, 許大殿) 선교사가 옆에서 많이 도왔다. 홀드크로프트 선교사는 평양선교부 소속으로 주일학교 교육사업에 투신 경험도 있었고, 전조선주일학교연합회 조직 시에도 일익을 담당한 바 있었고(1911. 4), 1932년까지 상임총무로 있으면서 당시 부총무였던 정인과 목사를 훈련시켰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수진,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 (총회장 88인 열전)』,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98면; 홀드크로프트와 정인과의 만남은 언제가 처음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홀드크로프트가 안식년(1921-1923)을 맞아 프린스턴 신학교에 건너가서 Th.M. 과정(1922-1923)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정인과의 만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인과는 홀드크로프트의 적극적인 권유와 도움으로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 부총무로 초빙될 수 있었다. 특히 일제는 정인과의 임시정부 이력을 문제 삼았지만, 홀드크로프트가 신원을 보증한다는 조건으로 정인과의 입국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또한 추측키는, 홀드크로프트가 1926년 서울로 선교지를 이입하기까지 1909년에 선교사로 입국한 이래로 계속 평양 선교사로 있었기에, 정인가가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 홀드크로프트와 어떤 형태로든 만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Holdcroft, "Annual Personal Report to Station and Mission, 1923-1924", in Korea Mission Records, ed.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Inc., 1999), reel no. 6, RG 140-8-22. 최영근, 「정인과의 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교회사학』 9, 2010, 140면에서 재인용.

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그 이후 동우회 사건을 기점으로 장로교회와 일제 사이에서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일제가 교회에 요구하는 바에 협력하여, “기독교계 친일파”의 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다.⁹

이후의 발행과 편집을 맡는 인물들도 대부분 미국인 선교사, 조선인 목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홀드크로프트 이후의 발행인인 본 위(Bon Wick G.W. 한국명 반우거) 앤더슨(Anderson, W.J. 한국명 안대선) 등도 영국 혹은 미국인 선교사들이며, 편집인 한석원, 정인과(鄭仁果) 허봉락(許鳳洛) 송관범(宋觀範) 전영택(田榮澤) 이운재(李允宰) 주요섭(朱耀燮) 최봉칙(崔鳳則) 강병주(姜炳周) 장홍범(張弘範) 등의 인물들도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 목사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예수교서회’와 ‘조선주일학교연합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으며 겸직(兼職)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선예수교서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라는 기독교 단체가 잡지 발간의 배경이 되고 선교사 및 목사가 발행과 편집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아이생활』은 처음부터 ‘문서선교(文書宣敎, Literature mission work)’를 지향하는 잡지였음이 분명하다.

『아이생활』은 주로 기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애독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독자의 소리’ 격인 ‘자유논단’을 보면 “저는 평양 기독교청년부 소년부원이올시다 우리 부원 오십여인과 갖치 아희생활을 사랑합니다”(1927, 12)라는 단체구독을 암시하는 글을 비롯하여 한국 최초의 개신교 청년단체인 엽윗청년회 소년부원들과 주일학교학생들의 단체 사진(1931, 1)이 실리기도 하는 등 교회의 주일학교 활동과 깊은 연

9 최영근, 위의 논문, 134~136면.

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성탄절 특집호인 12월호의 경우, 성경의 이야기를 각색한 성극이 실리는데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공연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1927, 12), 교회 주일 학교용 도서인 『여름아동성경학교용도서』(1931, 7)와 『아동 설교집』 등 각종 기독교 도서의 광고가 실린다.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층을 고려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아이생활』이 일차적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국의 근대 문학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역사를 논하려면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처럼 근대의 아동문학과 아동문화를 살펴볼 때에도 기독교가 미친 영향에 대해 문학사적으로, 사회사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아이생활』은 기독교 단체 및 관련 인사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간된 잡지였기에 기독교가 아동문학과 문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이고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아동문학과 기독교의 연관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사회사적 맥락과 역사적 정황의 검토가 필요한데, 필자가 살펴본 선행연구 중 사회사적 접근 및 역사적 접근을 심도 있게 진행한 논문은 많지 않아 보인다. 기독교 계열 잡지였던 『아이생활』의 발간 배경에는 기독교의 불모지와 같았던 조선에서 기독교가 세계사적으로 유래 없는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구한말 유교적 세계관과 중화 중심적인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지던 시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급속한

10 1897년 제13회 미감리회 한국선교연회의 결정으로 창립한 청년단체이다. 창립이후 한국 청년운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청년단체. ‘엿엇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고향 이름에서 따왔다.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관한 고찰을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전파와 그 사업의 일환이었던 문서 출판 사업을 통해 발간된 『아이생활』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전파된 기독교에 관한 역사적·사회사적 의미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¹¹ 이를 통해 『아이생활』의 발간과 잡지의 성격, 게재된 문예물에 관한 총체적이고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는 『아이생활』을 초기(1926~1933), 중기(1934~1939), 말기(1940~1944)의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초기와 중기에는 “기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아동 교육에도 적잖은 헌신을 했으며 비교적 많은 문예작품들을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의 비평 활동과 이론적 연구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평가하며, 말기에는 “기독교 전도지적인 특성이 극도로 흐려지는가 하면 순천 일적 경향은 반비례”한다는 평을 내린다.¹² 이 평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편집인사와 작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을 뿐 『아이생활』 배후에 존재하는 기독교 사상과 그 주도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정선혜는 『아이생활』에 대해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민족적 정서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일제 말 전시체제기에 “『아이생활』만이 1944년까지 살아남아 그 민족정서의 맥”을 이어왔다고 평가하였으나, 1940년대의 『아이생활』은 노골적인 친일 노선을 걸으며 황국신민화 정책과 내선일체 정책을 잡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1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¹³

11 헤리 로즈 저, 최재건 옮김, 위의 책 참조.

12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114-116면.

최명표는 『『아이생활』연구』에서 『아이생활』의 편집진이 선교사와 목사라는 것, 그리고 잡지에 기독교 관련 내용이 다수 실린 것, 40년대 전 시체제기에 친일 잡지로 성격이 전환되는 것 이 세 가지로 『아이생활』을 규정하였다.¹⁴ 그러나 이 연구는 18년간 간행되었으며, 통권 200호가 넘는 『아이생활』을 시기를 한정시키거나 부제를 붙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연구의 초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30페이지 분량의 소논문 에 잡지 전체를 규정시켰기에 『아이생활』 전체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창간 배경 및 편집인사 등에 관한, 매체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기초 조사도 부족하다.

박금숙의 연구는 40년대의 『아이생활』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한글이 혼용된 ‘이중어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잡지가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방식을 분석했다.¹⁵ 그러나 40년대에 『아이생활』이 친일잡지로 변모하는 과정은 일제 말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회와 선교단에 분열이 일어났던 배경과 관련지어 고찰해야만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¹⁶ 초기와 중기의 『아이생활』의 발행인들은 대부분 미국의 복장로교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들로, 일제에 의해 신사참배가 강행되자 선교단을 탈퇴하거나 기독교 관련 사업을 그만 두고 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⁷ 때문에 발행권과 편집권이

13 정선혜, 『韓國 基督教 兒童文學 研究 : 形成과 展開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4 최명표, 『『아이생활』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4, 2013.

15 박금숙, 「일제강점기 『아이생활』의 이중어 기능 양상 연구 -1941~1944년 『아이생활』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0, 2015.

16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159면.

17 1940년 11월 6일, 미국 정부에서 미국인들의 철수를 위해 인천항에 보내준 마리포사호(The Mariposa)를 타고 대부분이 선교사와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219명(선교사와 가족 189명)이 귀환하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 친일계 인사로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¹⁸ 또한 위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잡지의 발행 배경과 발행인, 편집인, 수용자 등을 고려한 매체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못했다.

근대 아동잡지들은 한국 아동문학이 생성되고 소통하는 가장 주요한 매체였다는 점에서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아이생활』은 한국 근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기독교가 그 배경에 있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하며, 이제 시작 단계인 『아이생활』 연구에서는 매체의 발신자와 수용자, 유통 및 수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체의 전체적인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 선교사, 문서 선교 및 잡지 발간의 주축이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단을 비롯하여 서구권 선교사에 대한 연구 및 잡지의 보급 통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주일학교와 기독교 교육 사업에 관한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잡지에 대한 성격이 연구된 후에야 『아이생활』에 게재된 문학 작품에

국적	소속 선교부	성인 남	성인 여	아동 남	아동 여	계
미국	북장로회	4	18	14	16	52
미국	남장로회	10	20	11	8	49
미국	미감리회	8	47	10	10	75
미국	안식교	1	4	2	0	7
미국	동양선교회	0	1	0	0	1
미국	오순절교회	0	1	0	0	1
영연방	캐나다연합교회	1	1	0	2	4
합계		24	92	37	36	189

* 전거 : 조선총독부 사정국, “영미인의 철수 상황 및 그 영향”, 『제79회 제국의회설명자료』 (1941년 12월), 445면. 김승태, 위의 책에서 재인용, 230면.

- 18 장로회 선교부 소속의 사립학교 통계를 보면 1940도부터 전문, 고등, 보통 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가 0을 기록한다. 이 통계는 신사참배문제로 남, 북 장로회 선교부가 학교 폐교와 교육 선교에서 철수를 결의한 1936년 이후 급격히 학교와 학생 수가 줄어들어 1940년에는 완전히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들이 철수한 것을 반영한다. 김승태, 위의 책, 172면.

대한 객관적이고 섬세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다시 순환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¹⁹

2. 개항기 조선과 미국 기독교 선교사

『아이생활』을 연구함에 있어서 잡지의 창간과 지속적인 발행에 주축이 된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탐색은 필수적이다.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우리 근대사 내지는 민족문제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뉘어 있는 듯하다. 즉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선교사가 제국주의 세력의 침병이라는 인식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친화관계를 유지하였고 한국교회가 항일운동 내지 민족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협력하였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 다른 하나는 주로 기독교계 내부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한국이 비기독교 국가인 일제에 의해서 식민통치를 받았기에 기독교와 선교사에 대한 거부감이 덜했고 선교사의 전도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그것이다.²⁰ 두 견해 모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상황과 국제정세, 선교부의 정책 및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의 관계 등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당시 상황과 구조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은

19 김유진, 「『소학생』의 성격 연구 : 학교 교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2011, 71면.

20 김승태, 위의 책, 20면.

선교사를 주축으로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발행된, 기독교 전도지의 성격이 강했던 『아이생활』 연구에 있어서도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선교계의 대응은 강력한 친일 성격을 갖는 40년대의 『아이생활』을 연구할 때에 자세하고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²¹

『아이생활』은 아동문학과 아동문화에 기여한 종합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을 내재한 잡지였다. 또한 이 잡지의 발행인과 편집장은 홀드크로프트, 본 워 등의 기독교 선교사였고 한국인 편집인들의 경우 그들과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던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따라서 『아이생활』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선 기독교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내한 외국인 선교사, 특히 미국인 선교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타국의 생소한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조선으로 침투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아이생활』의 창간 주도세력인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내한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1 이를 고찰하기 전에 선교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선교사는 당시 식민지 조선 민족의 일원이 아니며 타국 국적을 갖고 그 나라의 지시와 보호를 받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타국인인 그들에게 인류 보편적이고 인도적인 처신 이상의 것, 우리 민족이 가졌던 민족의식이나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동일하게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주체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선교사가 당시 조선에 온 목적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전파와 교회의 설립에 있다. 『아이생활』도 주일학교연합회가 관여한 보조교재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잡지이고 이는 종교인인 선교사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중 일부였다. 따라서 그들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한, 그 목적을 효과적이고 충실히 수행하려 한 노력을 비판할 수 없다. 『아이생활』의 전도지적 특성 자체를 비판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위의 사항들을 간과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태, 위의 책 참조.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노력은 여러 나라의 기독교 기관에서 시도하였지만, 선교사를 직접 한국에 파견한 최초의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등의 교파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가장 먼저 상륙시켰다. 미국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한 것은 그들의 해외 선교열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미국에서는 18세기 말에 제2차 대각성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 일련의 종교적 열정으로서 해외선교열이 고조되었다. 전도사 드와이트 무디(Dwight Moody)가 주도하는 SVM(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운동으로 1880년대에 이르러 신학교 및 일반대학교 학생들 사이에 선교운동의 열기가 치솟았다.²² 한국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 중에는 이 운동에 자극받아 해외 선교에 뜻을 세운 사람들이 많다.²³

그러나 한편으로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대상이었고,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 진출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종교적인 사명을 수행했던 서구인이기도 했다.²⁴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에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다. 조선은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자원이나 시장이 너무 작고 낙후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되자 몇 개월 후 베이

22 학생자원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은 1886년 미국 노스필드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하여 아서 피어슨 박사(Arthur Tappan Pierson)가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Moody L. Moody)와 함께 설립한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선교운동 단체이다. 1886년 헬몬산(Mt. Hermon)에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미국 및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학생 YMCA Summer Bible School”에 참석하였다. 그 집회에서 당시 선교와 설교로 유명한 피어슨 박사가 세계선교에 대한 인상적인 설교를 통하여 이 운동을 창설하도록 제안하였다. 그의 유명한 설교 ‘우리는 가야 한다. 모든 곳으로 가야 한다’(‘All should go, go to all’)는 대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 운동이 태동한 계기가 된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을 SVM 출신 선교사라고 하며 그들의 다수가 조선에 와서 전도, 교육, 봉사에 공헌을 하였다.

2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기독교문사, 2006, 174~175면.

24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9면.

징 주재 미국공사 존 영(John Young)이 또 다른 베이징 주재 미국공사 프레데릭 프레링후이센(Frederic Frelinghuysen)에게 조선의 운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낸 것을 보면 위의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²⁵ “조선이 중국의 한 주가 되건, 일본에 합병되건, 아니면 독립국가로 남이 있건 우리가 잃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²⁶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은 미국이 조선에 진출한 주요 국가 가운데 서울 이외의 지역에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거의 모든 개항지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중국, 러시아, 영국 등도 최소한 두 개의 영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국가가 영사관을 여러 개 설치했다는 것은 보호해야 할 자국의 이익이 해당 국가에 많고, 또 영사 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미국 공사관 인력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아 공사 혼자서 모든 외교 영사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²⁷

물론 이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면모와 성격이 조선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의 이야기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이후 미국이 제국주의적 면모를 서슴지 않고 보여주며, 필리핀과 하와이를 점령해가던 모습은 외세를 경계하던 개화적 유학자들에게 미국의 한반도 진출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의 하와이 병합은 사탕농장을 두고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 언론의 보도

25 류대영, 위의 책, 48면.

26 Young to Frelinghuysen, Dec. 26, 188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Papers relating to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82~1910. 172면. 류대영, 위의 책 48면.에서 재인용.

27 류대영, 위의 책, 51면.

를 통해 조선 지식인들에게도 잘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해외 선교는 제국주의의 한 요소였다는 주장을 펴 왔다. 선교사업을 두고 “도덕화된 제국주의의 한 형태”(a moral equivalent for imperialism)라거나 혹은 “미국의 경제적 팽창의 문화적 동반자”(the cultural counterpart to America's economic expansions)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린 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특정한 지역에서의 선교사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선교사업이 제국주의의 한 형태였다는 명제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선협적인 결론들은 실상 학자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²⁹

선교사의 선교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반사학자와 종교사학자들이 가졌던 공통적 관심사 중 두드러진 것은 선교사업의 ‘동기 유발 요인’이었다. 이는 『아이생활』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연결 되는 주제로 생각된다. 선교사업의 동기 유발 요인을 찾음으로써 선교사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펼치는 활동의 배후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이 이런 작업에서 얻어낸 잠

28 그 당시 막 배재학당을 졸업했던 이승만은 미국의 하와이 강점을 본 후 미국 선교사들을 “미국 정부가 장래의 조선 강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앞잡이들”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와이 강점의 모습은 미국이 먼저 사업가와 선교사를 보내서 준비 작업을 하고 난 후, 때가 무르익으면 정부가 나서서 강점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일본에서 무역을 시작한 후 선교사를 보냈으며, 조선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미국의 동기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류대영, 위의 책, 72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국제정치적 사안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조선 문제가 외교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리 없었다. 영국과의 베네수엘라 국경분쟁(1895), 스페인과의 전쟁(1898), 필리핀 점령(1898), 하와이 합병(1898), 그리고 중국 의화단 운동(1899-1900) 등과 같은 중요한 외교적 문제들에 비해서 조선과 관계된 일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류대영, 위의 책, 74면.

29 류대영, 위의 책, 20면.

정적 결론은, 19세기 말에 서구의 복음적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천년설적(premillennial) 세계관과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 선교에 크게 성공한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의 학생자원운동(SVM)이 선교사들의 조선선교를 유발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³¹

3. 『아이생활』의 창간 주도 세력

1) 학생자원운동(SVM)과 내한 선교사의 관계

미국교회의 해외 선교사업은 19세기 중반에 이를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변창하였다. 이제 막 독립하여 공화국을 이룬 미국의 고양된 사회 분위기와 왕성한 경제 성장이 연료를 제공했고, “제2차 대부흥(the Second Great Awakening)”이후 미국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한 “복음적(evangelical)” 개신 교단들이 그 동력기관이 되었던 것이다.³² 그러나 초기의 이런 고무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간에 이르렀을 때 해외 선교사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선교사 지원자들의 수뿐 아니라 교회로부터의 관심과 지원도 줄어들었다. 특히 남북전쟁이라는 파괴적 비극을 겪고 난 이후에는

30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참조.

31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및 천년왕국과 관련된 학설로(계20:1-6),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견해이다. 일명 ‘천년왕국 전(前) 재림설’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천 년’을 문자적인 1,000년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가스펠서브, 『교회용어사전 : 교리 및 신앙』, 생명의말씀사, 2013.

32 미국에서 1787-1825년에 일어난 국가적 신앙 부흥운동. 뉴잉글랜드의 회중교회에서 시작되어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대학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1차 때와 달리 자재력 있고 질서 있게 전개되었으나, 서부에서는 1차 때와 유사한 감정적 기운이 여전하였다. 2차 대각성운동은 주로 정통 신앙의 확립, 도덕생활 확립, 국가 사랑, 노예 폐지, 선교 등을 강조하였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1870년까지 미국 개신교계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의 수는 약 2,000명이었고, 이것은 당시 미국의 국력, 인구, 기독교 신앙의 부흥 정도 등을 생각해 볼 때 기대 이하의 수치였다.³³

그러나 1880년부터 선교 관계의 각종 지표들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파송되어 해외에서 일하던 선교사의 수가 1890년에 943명이던 것이 세기 말에는 약 5,000명, 192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12,000명이 되는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1880년대 말 이후 이렇게 급증한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그 동안 여러 가지 견해를 밝혀 왔다. 그 중 일반사학자인 존 페어뱅크는 1880년대 북미 대륙이 완전히 정복되어 개척지가 사라진 것과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SVM)’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해외 선교운동이 1880년대 말 이후 급격히 부흥기를 맞은 것은, 북미 대륙에서 더 이상 정복해야 될 땅이 사라진 이후, 미국인들 속에 있는 개척 정신이 해외로 눈을 돌려 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한 현상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1880년대는 미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산업자본주의가 완성된 시점으로 제국주의적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시점이었다. 해외 선교는 미국 산업자본주의의 제국주의화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³⁴

한편 종교사학자들은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 증가의 이면에는 19세기 말에 복음권에서 위세를 떨친 새로운 종말론적 믿음이 있다고 보았다. 전천년설(前千年說, Pre-Millennialism)을 지지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은 비극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서, 유토피아와 같은 낙원이 종말 이전에 완성

33 류대영, 위의 책, 36면.

34 류대영, 위의 책, 38면.

될 수 있을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의 재림(再臨)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완성된다고 믿었다.³⁵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전천년설은 주류 교단 내에 깊이 침투하여 영향을 미쳤다.³⁶ 많은 뛰어난 지식인들이 전천년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일에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드와이트 무디(Dwight Lyman Moody)와 그의 전천년주의 동료들이었다.³⁷

전천년주의자들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곳은 해외 선교 분야였다. 전천년주의자들은 도래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해외 선교에 적극적이었다.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SVM을 창설했던 아서 피어슨(A.T. Pierson)이 만들어 SVM의 운동 구호로 널리 사용되었던 “이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시키자”(evangelize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는 말 속에는 종말론적인 색채가 농후하다.³⁸

자연히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SVM 출신 내한 선교사들은 전천년주의자, 즉 종말론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이생활』에 “「이상한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1931. 9)라는 책자의 광고가 발견되는 것도 이런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전천년설은 예수의 재림, 즉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1905년부터 1909년까지의 기간을 예로 들면,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새로 입국한 미국

35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및 천년왕국과 관련된 학설로(계20:1-6),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견해이다. 일명 '천년왕국 전(前) 재림설'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천 년'을 문자적인 1,000년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가스펠서브, 위의 책 참조.

36 Hutchison, William R., 『Errand to the World: American Protestant Thought and Foreign Miss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112면. 류대영, 위의 책 51면.에서 재인용.

37 매사추세츠주(州) 노스필드 출생. 구두수선·구두방 경영을 하다가, 보스턴에서 신앙생활로 전향한 후 1860년 시카고에서 전도사가 되었다. 1870년 I.D.생키를 만나면서부터는 그가 찬송을 불러서 무디의 대중전도를 도우면서 영국과 미국 각 도시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다. 1879년 노스필드여자 신학교, 1881년 소년교육을 위한 마운트 헤르몬학교를 세우고, 1889년에는 초교파적인 무디성경학원(후에 신학교)을 설립하였다. 그는 성경교육·전도로 일생을 마쳤다.

38 류대영, 위의 책, 40면.

선교사는 135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81명이 SVM을 통해 지원한 사람들이었다. SVM 지원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주류 4대 교단 선교부³⁹를 통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주류 교단 중 하나인 복장로교 선교부 소속 지원자들 역시 SVM 출신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⁰ 각주의 표를 보면 SVM출신 선교사는 전체 내한 선교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아이생활』의 발행인이자 주축이 되었던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조선주일학교연합회(1905년 설립)와 조선예수교서회(1889년 설립)는 주류 4대 교단, 특히 복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단체들이다.

2) ‘조선예수교서회’와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아이생활』의 발행에서 두 축이 되었던 기관은 ‘조선예수교서회’와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이고 이 단체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예수교서회’는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문서 사업 단체였으며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전국의 교회에 주일학교를 보급하고 통솔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개신교 교육 사업 단체였다. 또한 두 단체

39 남·북 장로교단, 남·북 감리교단.

40

연도	*총 내한 선교사	내한 선교사 중 SVM 출신자	내한 선교사 중 4대 교단 출신자
1906	14	8	14
1907	43	23	42
1908	48	29	45
1909	30	21	28

(*)추정치

“Appedic A : List of Sailed Volunteers” Students and the Present Missionary Crisis: Addresses Delivered before the Six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tudent volunter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Rochester, New York, December 29, 1909 to January 2, 1910, 513~532면. 류대영, 위의 책, 51면.에서 재인용.

의 최초 설립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나 차차 미국 감리교 및 타 교단과 연합하여 초교파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

조선예수교서회는 1889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존 헤론(J. W. Heron)의 제안으로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의 사택에서 최초로 조직되었고, 그 자리에서는 장로교회와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문서 출판사 설립을 의논하기 위한 비공식 회합이 있었다.⁴¹ 백낙준 박사의 『한국개신교사』에는 “이 서회의 기원은 아이디어를 낸 헤론 박사, 영국 및 미국 기독교서회의 재정 지원을 확보한 언더우드, ‘조직화’를 이룬 올링거(Ohlinger)⁴²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⁴³ 이후에도 서회가 후원받은 내용을 보면 『아이생활』의 발행에 해외 기독교 단체의 재정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조선 기독교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서회의 활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미국 북장로교단 선교회사』를 보면 서회는 1910년부터 1931년까지 20년 동안 단행본, 정기간행물, 소책자 등을 합하여 총 3,200만권의 판매량을 기록했다.⁴⁵ 또한 서회는 ‘연합선교공의회’와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의 조정으로 주일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교재와 잡지를 출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⁶

서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간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10년에 북

41 대한기독교서회 홈페이지 http://www.dsk.org/history.php?bo_table=intro

42 프랭클린 올링거(F. Ohlinger)는 한국 기독교 문서 선교 및 출판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감리교 소속이었다.

43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130면.

44 서회는 판매수입 외에 연회원이나 평생회원 구독료, 선교회의 충당금, 한국교회들의 몇 차례 기증금, 개인들과 여러 해외 선교회 단체들의 헌금으로 후원을 받았다. 헤리 로즈, 위의 책, 404면.

45 헤리 로즈, 위의 책, 403면.

46 홍승표, 『일제하 한국 기독교 출판 동향 연구 : 「조선예수교서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장로교 선교사 제럴드 본 윅(Gerald Bonwick)이 간사로 임명되었고 10년 이상 홀로 행정 일을 수행하였다. 본 윅은 ‘반우거’라는 한국 이름으로 오랜 기간 『아이생활』의 발행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다수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조선예수교서회’와 ‘주일학교연합회’ 두 기관에서 동시에 활동하였다. 또 다른 발행인이었던 홀드크로프트(허대찬) 선교사와 정인과 목사, 한석원 목사 등등의 편집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전국의 주일학교를 통솔하고 총괄하여 주일학교 사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워진 기구이다. 주일학교는 기독교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주일학교의 역사는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연원은 교회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로부터였다.⁴⁷ 선교사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은 1886년 7명으로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고종은 그 학교의 명칭으로 ‘이화학당’을 하사하게 된다.⁴⁸ 이 때 이화학당에 모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후에 일요일마다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한국 주일학교이다.

그러나 최초의 주일학교에는 성인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유년주일학교’의 시초는 1900년으로 보며,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선교사 윌리엄 아서 노블(William Arthur Noble)의 부인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이 ‘유년주일학교’라는 명칭 하에 5세로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을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한 바, 이것이 유년주일학교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 아동 수는 200명, 교사

47 손원영, 「한국초기 주일학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 2008.

48 Clark, A. 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1, 면. 93~98 손원영,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159면.

는 20명이며, 공과는 통일공과를 사용하였다고 한다.⁴⁹ 이처럼 유년주일 학교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로서, 후에 한국 주일학교의 대명사가 되었다.⁵⁰

주일학교의 또 다른 표현은 ‘소아회’(小兒會)이다. 이것은 1907년 연동교회에서 이루어진 유년 주일학교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당시 유년주일 학교가 주로 감리교에서 사용하던 용어였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다른 명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동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던 김종상과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J. S. Gale)은,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소아회’로 부르기로 하고 연동교회의 주일학교를 ‘소아회’로 부르기 시작하였다.⁵¹

1915년 『기독신보』에 제안된 “주일학교의 표준”(19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일학교 기간은 해마다 매주일이고, 성경공부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아동(1-13세), 청년(14-20세), 성인(21세 이상)을 구분하여 반을 편성할 것, 교리문답자와 세례교인을 위해 반을 나눌 것, 교사들의 준비모임이 매주 개최되어야 할 것, 진흥주일을 준수할 것, 그리고 매주 일반적 성경지식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등이다.⁵²

개신교복음주의통합선교공의회(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가 1905년에 조직되었을 때 조선주일학교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조선주일학교위원회’는 1911년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특파원으로 내한한 브라운(F.H. Brown) 씨와 협의한 결과 ‘조선주일학교연합회’로 발전하게 됐다. 세계 기구와 손을 맞잡고 일하기 위함이었다. 이 새 기구의 실행위원으

49 정달빈, 『주일학교지도법』, 대한기독교서회, 1956, 62면.

50 손원영,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159면.

51 연동교회편, 『연동주일학교 100년사: 1907-2007』, 연동교회역사위원회, 2008, 72면.

52 『기독신보』, 「주일학교표준의 해석」, 1915, 12. 25. 손원영,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166면.

로 13명이 선출되었는데, 외국 선교사들인 서로득(M. L. Swinhart-남장로회), 방위량(W. N. Blair-북장로회) 권찬영(Y. J. Crothers 북장로회) 부두일(L. H. Foote) 맹호은(McRae-호주) 고영복(C. T. Collyer-남감리교), 변영서(B. W. Billings-북감리교) 노보을(Mrs. W.A. Noble-북감리교) 등 선교사와 현 순, 윤치호, 한석원, 남궁혁, 홍겸선 등의 한국 대표이다. 초대회장에는 서로득, 초대 총무에는 허대전(J. G. Holdcroft)이 선출되었다. 주일학교 사업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며 움직였는데, 한국 대표들이 세계 주일학교대회에 참석하여 세계 주일 학교 운동의 흐름과 그 움직임을 같이 했다. 1907년 5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5회 주일학교 대회에 윤치호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실행부 위원으로 선택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사정을 소개하는 연설도 했고, 1910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6회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하여 재차 실행부 위원으로 당선되었다.⁵³ 또한 ‘세계주일학교연맹’에서 매년 2,000달러를 원조해 주어 각종 주일학교 교재를 편찬할 수 있었다.⁵⁴ 주일학교는 한국의 기독교 단체의 활동 중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었다.⁵⁵

주일학교 운동은 1924년까지는 선교사들이 중심이었다가 1925년에 『아이생활』의 대표적 편집자인 정인과 목사와 한석원 목사가 협동 총무가 되면서 한국 지도자들도 실무에 참여하게 됐다.⁵⁶ 정인과 목사와 한석원 목사는 『아이생활』의 편집인이었고, 특히 정인과는 오랜 기간 단독으로 아이생활을 편집하거나 단편동화, 변안동화 등을 게재했다. 장로교회에서는 1933년 총회 내에 종교 교육부를 신설하고 정인과 목사가 총무가

53 김득룡, 「한국주일학교사 연구」, 『전국주교3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1985, 42~45면.

54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쿤란출판사, 2012.

55 1922년에 1개 학교, 5명의 교사들, 100명의 학생들로 시작해서 1931년 10년 후에는 800개 학교들, 4천 명의 교사들, 거의 7만 명의 학생들이 있게 되었다. 헤리 로즈, 위의 책, 431면.

56 김득룡, 위의 책, 48면.

되어 주일학교 사업을 관장해 나갔다.

이 주일학교연합회의 핵심 인사들이 『아이생활』의 발행인 및 편집인을 담당하였다. 발행인 중 한 명이었던 홀드크로프트 선교사는 이 협회의 총무였으며 전국의 주일학교를 통솔하였다.⁵⁷ 편집인인 정인과 목사와 한석원 목사는 1925년에 이 협회의 협동총무가 되었다. 주일학교협회에서는 주일학교용 교재 및 잡지를 다양하게 발간하였는데, 그 목록 중 하나를 『아이생활』이 차지하고 있다.⁵⁸

또한 주일학교연합회에서는 한국아동문학사에 의의가 있는 중요한 책들을 출판하였다. 첫째로는 미국인 선교사 피득(彼得, Alexander Albert Pieters)이 역술하고 도마런 선교사가(都瑪蓮 M. B. Stokes)가 발행한 『동화연구법』(1927)이 있다. 또한 탐손 박사의 동화이론 강연을 강병주(姜炳周) 목사가 정리한 『신선동화법(新選童話法)』(1934)이 있는데, 두 책은 주일학교의 동화구연자를 위해 펴낸 동화이론서이다.⁵⁹

홀드크로프트 선교사는 주일학교 사업과 문서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1911년 4월 전국주일학교연합회를 조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이 연

57 1909년 12월 15일 홀드크로프트(James G. Holdcroft, 허대전) 선교사가 부인(Nellie Cowan)과 함께 내한했다. 처음에 그는 평양스테이션에 배속되었다. 그런데 그는 특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1911년 4월 전국주일학교연합회를 조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홀드크로프트 선교사는 이 연합회의 상임총무를 맡아 1932년까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는 총무 재임 기간 중 주일학교 교재 출판에 힘을 써 1932년의 경우 한 해에 10만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서적을 반포하는 실적을 올렸다. 헤리 로즈 저, 위의 책, 420면.

58 교재로는 1927년부터 『계단공과』가 출판되었고, 잡지로는 『주일학계』·『주일학교잡지』가 있었으며, 1930년부터 『종교교육』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아이생활』은 1938년 일제의 탄압으로 주일학교연합회가 해체될 때까지 존속하여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59 '탐손' 선교사의 영문명과 정확한 약력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으나,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 세계주일학교협회의 특파원(파견원)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된 인물로 추측된다. "萬國幼年主日學校聯合會 特派員 米人 「탐손」 博士講演會: 現在 朝鮮人의 最急務가 幼年教育(馬山)" 『동아일보』, 1921년 12월 27일.

합회의 상임총무를 맡아 1932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는 총무 재임 기간 중 주일학교 교재 출판에 힘을 써 1932년의 경우 한 해에 10만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서적을 반포하는 실적을 올렸을 정도로 능력있는 발행인이자 편집자였다.

이 주일학교연합회의 소속 인물들이 『아이생활』의 편집을 맡은 만큼 주일학교연합회를 통해 각 교회의 주일학교와 기독교인 가정에 잡지가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독자의 소리’ 코너인 ‘자유논단’에서 주일학교 소속 학생들의 사연이 많이 게재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아이생활』이 겨냥한 1차 독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일 학교로 매개된 아동 독자의 기반이 얼마나 탄탄했는지는 대규모 행사 및 주일학교용 코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한국기독교교육사』에 『아이생활』이 언급되는 것도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해당 책에서는 기독교 교육 잡지로서 크게 성공한 『아이생활』이 함께 언급된다.

“교재 출판으로 특기할만한 일은 1927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부별 계단공과를 출판했다는 점이다. 잡지로서는 1919년부터 홍병선씨 주간으로 『주일학교』라는 잡지가 야소교 서회 출판으로 나왔고(...) 얼마까지 못하였으나 1925년(1926년)부터 시작된 『아이생활』만은 대성공이었다.”⁶⁰

『아이생활』의 기독교적 특성 중에서도 주일학교와의 연관성은 『아이생활』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요소다. 교회에서 운영되는 주일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이 유·소년 층이

60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교육사』,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4, 49면.

며,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잡지라는 점은 잡지의 운영과 유통, 게재물의 특성 등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아이생활』 연구의 방향성을 알려 준다.

4. 『아이생활』과 기독교 선교사들의 문명관

조선에 서구 문물을 전해줄 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선교사들이었다. 물론 선교사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개종자를 얻어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서양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 서구 문화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⁶¹ 『아이생활』 역시 외국의 선교사들이 발행에 깊숙이 관여한 잡지로, 선교사들의 ‘문명관’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선교사들의 문명관은 그들로부터 기독교를 비롯하여 서양 문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조선인 편집자, 목사 및 기독교 관련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결국 『아이생활』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00년대에 내한하여 활동한 선교사들을 1기 파송 선교사라 부를 수 있다면,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2기 파송 선교사들로 부를 수 있다. 2기 파송 선교사들 역시 1기 파송 선교사들과 그 문명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화기의 선교사들이 주장했던 문명론은 2기 파송 선교사들이 관여한 『아이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1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2009, 57~58면.

개항기의 조선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문명’을 조선에 전하여 ‘개화’시키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조선을 ‘문명화’되지 않은 곳, ‘개화’되지 않은 곳으로 여겼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문명’이란 무엇이었을까. 『아이생활』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문명관과 가치관을 알아보기에 앞서 개화기의 1기 선교사들이 발행했던 두 신문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을 참고하여 본다.⁶²

『조선크리스도인회보』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가 1897년 2월 2일 창간하여 대체로 주간(週刊)으로 발행하던 4~6면 분량의 순 한글 신문이었다. 『그리스도신문』은 1897년 4월 1일 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개인적으로 창간한 후, 1904년부터 장로교회의 공식 신문으로 발간된 순 한글 주간신문이었다. 이 두 신문을 참고할 때, 선교사들이 지닌 문명관과 관련하여 선교사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단서는 1901년 9월 12일자 『그리스도신문』에 게재된 「인종과 개화의 등급」이라는 기사에서 발견된다.⁶³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명은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까지 등급이 있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진보”하는데, 그 등급의 차이는 “개화”의 정도가 결정한다. 둘째, 가장 낮은 단계는 야만의 상태이며 그 다음 단계는 미개화, 또 그 다음 단계는 반개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문명의 경지다. 셋째, 가시적인 개화의 정도는 농업, 공업, 상업의 발달 정도에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을 발달시키는 것이 “실혼 학문”이다. 넷째, “실혼 학

62 선교사들의 “문명관”에 관한 논의는 류대영의 논문 「한말 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푸른역사, 2009)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63 「인종과 개화의 등급」, 『그리스도신문』 1901년 9월 12일, 류대영, 위의 책에서 재인용.

문”이 발달하면 부국강병 할 뿐 아니라 법률, 윤리, 의식에서도 진보한다. 다섯째, 개화의 정도, 즉 문명의 등급은 인종과 연관 있어, 대체로 피부가 어두울수록 낮은 단계에 위치하고 밝을수록 위쪽에 위치한다. 여섯째, 조선은 청이나 인도, 그리고 “아시아중의 허다한 인민”과 마찬가지로 반개화한 나라다. 결론적으로, 이 “등급”이론은 당대 서양의 유사과학적인 인종론과 사회진화론적 역사-문명관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전형적인 서구 중심 세계관이었다. 피부의 명암을 인종 서열이나 문명개화의 정도와 연결시키는 관점은 당시 앵글로 색슨인들이 가졌던 전형적인 인종-문명관이었다.⁶⁴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는 “허실론”이라는 글에서 “격물학 기계학 리학 화학 굿은 책”을 공부해야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 생기고 자연히 “문명하며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⁶⁵ 이것은 과학과 실용학문의 발전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사는 『아이생활』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1931년 1월호 『아이생활』에는 「과학뉴스」라는 코너가 따로 있었고, 「안개 예언하는 뉴스」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스모그 측정기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 논돈에는 안개가 넘우심하여 살기에 펍 괴롭다. 이 안개가 언제 끼는지 알아내는 장치 개발.”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같은 호에는 마찬가지로 「자전거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전거의 초기 모델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2월호에는 「과학뉴스 : 라디오 등사판」이라는 제목으로 라디오를 소개한다.⁶⁶ 이러한 과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글은 『아이생활』 매호마다 1~2회 이상은 반드시 등장한다.

64 류대영, 위의 책, 64~65면.

65 「허실론」, 『조선크리스도회보』 1897년 5월 19일, 류대영, 위의 책에서 재인용.

66 「안개 예언하는 뉴스」, 『아이생활』 1931년 1월호, “라디오 등사판”, 『아이생활』, 1931년 2월호.

애국심 또한 문명화로 가는 길의 강조 대상이었다. 선교사들이 말하는 애국심이란 충군애국이라는 전통적인 국가관을 넘어서 근대적 시민의식을 지향하는 개념이었다. 1906년 9월 27일자 「신문」의 논설은 문명한 나라들과 조선의 차이가 국민들의 애국심 여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명국 사람들은 자기 집안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한데, 조선 사람들은 집안과 일가는 사랑하되 “나라 스랑할 줄은 도모지 아니 못”하므로 약소국이 되었다는 것이다.⁶⁷ 또한 이는 자주독립과도 연관된 문제였는데, 1898년 7월 7일자 논설은 관리들이 월은이나 받아먹으면서 자신만 위하되, 나라는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속국이 되어 종노릇 하든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나 다른 나라와 같이 자주 독립국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⁶⁸

이러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지론은 2기 선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생활』은 식민지 시대의 국어학자 김윤경 선생의 「한글독본」이라는 코너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1931년 1월호부터 시작된 김윤경의 「한글독본」에서는 조선, 신라, 백제, 등 조선 이전의 고대 국가들의 역사를 순한글로 기록하여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생활』은 조선의 위인들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1931년 7월호는 “이순신 특집”으로 해당 호 전체를 꾸몄다. 이순신을 주제로 한 동요와, 동시를 소개하고, 거북선과 이순신의 업적을 교양 역사 코너에서 소개하였다. 조선뿐만 아니라 신라 시대의 위인을 소개하는 코너, 고려 시대의 위인을 소개하는 코너도 발견된다.⁶⁹

67 「논설: 교육과 사회의 관계」, 『그리스도신문』 1906년 9월 27일. 류대영, 위의 책에서 재인용.

68 「논설」, 『그리스도신문』 1898년 7월 7일. 류대영, 위의 책에서 재인용.

69 「박제상」, 『아이생활』 1927년 9월호, 54~55면.; 「이달의 명현 「김후직」」, 『아이생활』 1931년 4월호, 19면.; 「조선의 위인 「비녕자」」, 『아이생활』 1931년 5월호, 14~15면.

또한 『조선크리스도회보』는 주로 청년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며 살 것을 강조했다. 1899년 2월 1일자 회보는 청년들이 “열 가지 요심할 일”을 언급하며, “게으른 사람의 버르장”인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을 첫째로, 스스로 할 만한 일을 남에게 시키는 일을 둘째로 꼽아 게으름과 의타심을 경계했다.⁷⁰ ‘교육’과 ‘교화’ 또한 선교사들이 강조하던 문명의 덕목이었다. 1927년 11월호 『아이생활』에는 「아희의 생활(아희생활을 애독하시는 동무들의 계)」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훈화였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아이생활』에 실린 교훈적인 동화를 통해 위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시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적은일큰일」, 「설날」이라는 단편동화는 선행과 정직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내용이며, 다수의 동화들이 성실함과, 정직을 강조한다.⁷¹

선교사들이 가졌던 문명개화론은 선교사들의 우호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었다. 역사학자 류대영은 이에 대해 “우리 민족 자의식의 일부로 남은 패배의식, 열등감, 그리고 서구화에 대한 강박관념은 문명개화론에 설득당하고 제국주의에 강탈당한 역사의 지워지지 않는 흉터”라고 말한 바 있다.⁷² 『아이생활』은 기독교 종교지이자 교육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이러한 서구 중심적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문제는 차후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70 「엿윗청년화: 열 가지 요심할 일」, 『조선크리스도회보』 1899년 2월 1일. 류대영, 위의 책에서 재인용.

71 한가람, 「적은일큰일」, 『아이생활』, 1931년 2월호 69~71면.

은방울, 「설날」, 『아이생활』, 1931년 2월호 72~74면.

72 류대영, 위의 책, 106면.

5. 결론

『아이생활』 발간에 참여한 내한 선교사들은 기독교 전파 및 교회의 설립이 목적이자 동기였던 만큼 그들을 파송한 미국 혹은 영국의 교회 및 기독교 선교 단체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또한 『아이생활』의 배후에는 그들이 조선에 들어와 설립한 기독교 출판사인 ‘조선예수교서회’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설립한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있었다. 『아이생활』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인 만큼, 어린이에게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주일학교’와 『아이생활』의 관련성은 『아이생활』의 성격과 목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한 선교사들의 문명관은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생활』이 그러한 문명관을 조선의 어린이들, 특히 기독교인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에서 실증적으로 다룬 것처럼, 『아이생활』에는 선교사들의 서구 중심 문명관이 여러 지면을 통해 나타난다. 선교사들의 문명관 중 중요 요소인 ‘기독교식 교육과 교화’는 어린이 잡지인 『아이생활』의 창간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발행인에 서구권 선교사, 편집인에 그들에게 신앙훈련을 받은 조선인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선교사들의 문명관은 그들의 지도를 받은 조선인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이 미친 영향력이 잡지를 분석하는 단계의 가장 기초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선교사의 내부적·외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것이 『아이생활』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읽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근대 문학과 교육의 역사를 논하려면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처럼 근대의 아동문학과 아동문화, 교육제도를 살펴볼 때에도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이 문학사적으로, 사회사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 기독교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아이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이생활』은 한국의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귀한 자료이다. 동시에 기독교의 역사가 그 연구의 바탕이 되어야만 실증적이고도 명료한 연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전파와 그 사업의 일환이었던 문서 출판 사업을 통해 발간된 『아이생활』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와 전래의 주체가 된 선교사, 기독교 출판 사업 및 주일학교에 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생활』에 게재된 기사와 문예물에 관한 총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아이생활』, 『동아일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종교운동편』, 『김창제 일지』

2. 논문

김득룡, 「한국주일학교사 연구」, 『전국주교3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1985.

김유진, 「『소학생』의 성격 연구 : 학교 교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2011.

박금숙, 「일제강점기 『아이생활』의 이중어 기능 양상 연구 -1941~1944년 『아이생활』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0, 2015.

박영정, 「1920년대 초 주일학교 공연 레퍼토리 분석」, 『한국문학과 예술』 5, 2010.

손원영, 「한국초기 주일학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 2008.

윤춘명, 「삶과 교육 -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개척자 한석원 목사」, 『교육교회』 151, 1988.

정선혜, 『韓國 基督教 兒童文學 研究 : 形成과 展開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최명표, 「『아이생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4, 2013.

최영근, 「정인과의 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교회사학』 9, 2010.

홍승표, 『일제하 한국 기독교 출판 동향 연구 : 「조선예수교서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 단행본

가스펠서브, 『교회용어사전 : 교리 및 신앙』, 생명의말씀사, 2013.

김승태, 『내한 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_____,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김수진, 『총회를 섬겨 온 일꾼들(총회장 88인 열전)』,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쿰란출판사, 2012.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교육사』,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4.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_____,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푸른역사, 2009.

- _____,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안동교회 역사보존위원회, 『김창제 일지 1926』, 안동교회역사보존위원회, 2010.
- 연동교회편, 『연동주일학교 100년사: 1907-2007』, 연동교회역사위원회, 2008.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정달빈, 『주일학교지도법』, 대한기독교서회, 1956.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기독교문사, 2006.
- 헤리 로즈 저, 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4. 기타

대한기독교서회 홈페이지 http://www.clsk.org/history.php?bo_table=intro

Abstract

A Study on The Leadership in The Creation of
Ai-Saenghwal

Park, Young-Ji

Ai-Saenghwal is a Christian children's magazine that was founded in March 1926 and has been published continuously for 18 years until January 1944, and is the longest public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i-Saenghwal* was naturally oriented toward Christian education and missionary work, as a number of foreign Christian missionaries were involved in its publication and financial affairs.

In particular, *Ai-Saenghwal* was a magazine published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Christian organizations and related figures, so it is an empirical and clear look at how Christianity affected children's literature and culture. However, research on this is not very active. To discuss the link between children's literature and Christian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ocial historical context and historical context of Christianity at that time.

Based on this, only after the nature of the magazine has been studied will objective and detailed studies of literary works published in *Ai-Saenghwal* be possible, which should be developed in a circular manner again.

- key word : Ai-Saenghwal, Christianity, Missionary, Sunday school, Christian magazine, the Association of Joseon Sunday Schools
- 논문접수일: 2019. 5. 11.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

